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8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26.(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8. 26.(목)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담당과장	정경록 과장(044-203-4870)	담 당 자	장영빈 사무관(044-203-4871)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 파이넥스(FINEX) 공장 방문

- "기후변화·친환경 시장, 우리기업이 선도자(first mover)로 선점해야" -

- "산업의 친환경 전환, 통상이 적극 지원" -

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분야 수입규제 적극 대응**
② 환경분야의 국제적 **신(新)통상규범 제·개정 주도**
③ 「**기후변화·통상 전담팀(TF)**」 **구성·운영**으로 통상분야 지원시책 구체화

1 (방문개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8.26(목) 포스코 포항 제철소 방문

○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시대 탄소감축 등 친환경 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상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차원

○ 아울러, 최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등 **환경분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단위당 탄소배출량에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 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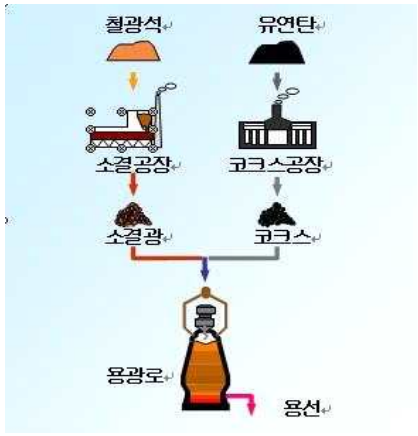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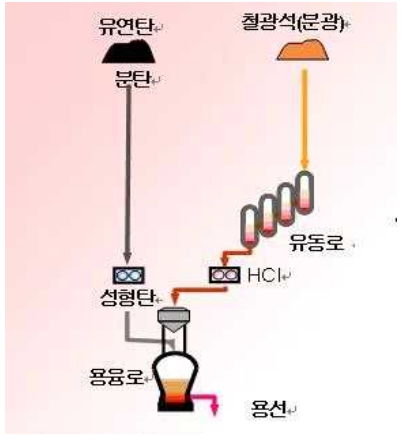
○ **일시·장소** : '21.8.26(목) 14:30~16:40, 포스코 포항제철소(경상북도 포항시)
○ **참석대상** : 산업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철강협회 등
○ **주요내용** : ❶파이넥스(FINEX) 공정 시찰(수소환원제철 기반기술), ❷업계 온라인 간담회

2 (현장점검) 친환경 기술이 적용 중인 포스코 파이넥스 현장 방문

○ **파이넥스 공법**은 기존의 고로공법과 달리 철광석·유연탄을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기술로 **환경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는 기술

* 기존 용광로 공법 : 사전에 가공을 거친 양질의 철광석과 석탄(코크스)만을 사용
** 기존 용광로 공법 대비 황산화물(SOx) 40%, 질산화물(NOx) 15%, 비산먼지 70% 수준

< 용광로 공법과 파이넥스 공법 비교 >

용광로 공정	파이넥스 공정
	

○ 향후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인 수소환원 제철공정* 개발에도** 파이넥스 공법이 활용될 예정

* 석탄대신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친환경 공정으로 철강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 無

< 수소환원제철 개념도 >



3 **(통상정책)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환경분야 수입규제 대응**과 우리기업의 **친환경 시장 진출 적극 지원 강조**

< 통상교섭본부장 메시지 주요내용 >

① **(필요성) 기후변화대응**은 단순히 환경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더 나아가 全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

○ 국제사회는 **COP26**를 계기로 **탄소감축을 위한 글로벌 공감형성과 협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EU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수입규제**를 준비

*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UN 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컨퍼런스

○ **세계적 산업강국**인 우리가 한 차원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필요**

② **(통상정책)** 앞으로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친환경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 예정

○ **(수입규제) CBAM 등 환경분야의 수입규제**가 **우리기업의 노력과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나친 행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외협상 추진

-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상용화, 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용 확대를 통상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

○ **(통상협력) 양자·다자협력**도 **산업·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

- 탈탄소·**친환경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통상지원역량 강화

- 친환경 시대를 좌우할 **희유금속 등 그린 공급망 강화, 수소경제분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미래산업의 외연확장을 통상이 지원**

○ **(통상규범) 기존 FTA 개선과 신규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경규범 제정에 만전**

-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setter) 역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시장 확대**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규 시장확보**로 연결되도록 지원

○ **(기후변화·통상 TF)** 통상교섭본부내 「**기후변화·통상 TF**」 구성·운영

- CBAM 등 수입규제 대응과 친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창구로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통상분야 지원시책을 구체화

4 **(간담회)** 현장점검 이후 **CBAM 관련 철강업계 온라인 간담회** 개최

○ 기업들은 CBAM 도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한국과 EU 배출권거래제간 상호인정을 통한 CBAM 배출권 비용 면제·감면 협의** 등을 건의

5 **(마무리) 통상당국**은 기업들의 **친환경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업들의 CBAM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해 **국내 지원대책 마련과 대외 협상전략 수립**을 약속

○ 과거에는 **탄소감축이 기업실적을 악화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였다면 **기후변화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흐름**을 타고 **공세적 자세**로 치고 나갈 것을 당부

○ 통상교섭본부도 **기업들의 탄소감축과 친환경 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다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장영빈 사무관(☎ 044-203-48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 포항 제철소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8.26, 포스코 포항제철소**

* **파이넥스공정**(수소환원제철 기반기술) 시찰 및 철강업계 **온라인 간담회**

□ **참석자 : 통상교섭본부장, 철강업계 등**

○ **(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 **(유관기관)** 철강협회

○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장

□ **세부일정 : 현장시찰 → 온라인 간담회**

시 간	일 정	비고
14:30~15:30	• Finex 공장 시찰	탄소중립/수소환원제철
15:30~16:40	• 온라인 간담회	웹엑스(Webex)
	- 본부장 모두발언	
	- 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 본부장 마무리발언	

붙임 2 간담회 모두발언

【 Ⅰ. 인사말씀 】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수희 포스코 제철소장님,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철강업계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Ⅱ.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 】

◇ 기후변화대응,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얼마 전 EU는 탄소를 함유한 수입 상품에 대해
소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일컬어지는 CBAM**을 부과하겠다며
세부내용과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단순히
환경 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더 나아가 全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UN IPCC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2100년도 전 세계 기온이
5.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사회도 올해 11월 개최되는
COP 26을 계기로 탄소감축을 위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계획하고 있고,

EU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앞서 말씀드린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무역장벽을 통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감축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그리고 새로운 사업기회로 보고,
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적 산업 강국으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한 차원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한 위기대응 차원을 넘어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Ⅲ. 그간 우리의 노력 】

◇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중입니다.

그간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한국판 뉴딜**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선도를 주요내용을 하는
그린뉴딜이 그 핵심입니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전국단위 수소경제 인프라 확산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끌고나갈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규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예타사업 추진 등 **막대한 재정 투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CBAM 등 환경분야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측면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U에 대해서는 **우리의 탄소중립 노력과 관련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CBAM 제도가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습니다.

WTO 차원에서도 **환경상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Ⅳ. 현장방문 소회 】

◇ 현장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적극적 통상정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FINEX 공법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파이넥스 공법은 전통 고로과정에서의 코크스 대신
가루형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사용하여
NOx, SOx 등 **환경오염물질을**
대폭 줄이는 친환경 기술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인
수소환원제철공정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시대는 누가 더 많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누가 더 **친환경적인 상품구성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는지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포스코의 친환경 현장은 우리기업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시대에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친환경 혁신 역량**이
친환경시장 진출과 세계시장 주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상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 Ⅴ. 정부 지원 방향 】

◇ 우리 산업의 친환경전환을 통상정책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이 친환경시장에서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통상지원 시책을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CBAM 등 환경분야의 수입규제가
우리기업의 노력과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나친 행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외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우리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상용화,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사용 확대를
통상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통상 분야의 양자 및 다자협력**도
우리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탈탄소·친환경 시장**을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과 에너지를 연결하고, 그리고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는
통상지원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시대를 좌우할 **희유금속 등 그린 공급망 강화**,
미래 에너지인 **수소경제분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미래 산업의 외연확장을
통상당국이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상규범 측면에서도
새로운 환경규범 정립이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FTA 개선과 신규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우리의 환경기술과 표준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규범 제정 과정에서
룰 세터(rule setter)**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상분야 지원방안은
통상교섭본부내 「**기후변화·통상 TF**」를 구성·운영하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통상 TF」는
CBAM 등 수입규제 대응과
친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창구로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